

北 핵폐기 이행 고삐진다

美 등 6자회담서 '완전 폐쇄' 요구키로...北 반응 주목



자유북한인 1만 명 돌파 기념대회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자유북한인 1만 명 돌파 기념대회에서 참석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일로 국내 입국 탈북민이 1만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을 포함한 참가국들은 북한이 이행해야 할 초기단계조치로 북한 핵시설의 '가동중단(cease)'이나 '동결(freeze)'이 아닌 '폐쇄(shut down)'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핵시설 폐쇄 대상으로 그동안 알려진 영변 5MW 원자로 뿐 아니라 핵연료봉 공장과 방사화학실험실, 건설 중인 50MW 원자로 및 200MW 원자로 등 5개 시설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6자회담에 정통한 북수의 정부 및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28일 한 소식통은 "가동중단이나 동결은 일단 스위치를 껐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스위치를 다시 켜면 재가동되지만 폐쇄는 그보다 훨씬 나

아간 개념"이라며 "단순 동결이 아닌 재가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미국은 물론 중국, 한국 등 북한을 제외한 나라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쇄라고 하면 관련 핵시설의 '문을 닫는다'거나 '봉인'의 의미가 강하다"며 "이런 조치를 수용해야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게 미국 등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 폐쇄'에 합의하고 핵 폐기 이행을 위한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에 합의할 경우 핵 폐기 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미국이 지난 달 6자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한 '폐기 지안'에 대한 의견수렴작업을 긴밀히 진행해왔으며 핵시설 '폐쇄'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참가국들은 또 폐쇄한 핵시설 사찰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차기 회담에서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 문서화 작업이 이뤄지면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핵 폐기 작업을 위한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초기 이행조치가 끝날 때까지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께 재개될 6자회담에서 이른바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로드맵 작성과정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참가국간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美, BDA 北자금 1,300만달러 해제 검토"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마카오의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400만 달러 가운데 1천300만 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미 의회 소식통은 이러한 경색 상황을 타개하고 핵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미 국무부가 자금동결 해지에 신중한 재무부를 설득, BDA의 북한관련 계좌에 있는 자금 가운데 자금세탁에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1천300만 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만간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핵시설의 동결 등 핵 포기를 위한 조치에 동의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30일 시작되는 북·미 금융협약에서도 북한이 어떻게 응할지 알 수 없는 만큼 미국은 북한의 태도를 신중히 지켜본 뒤 금융제재 조치의 완화에 나설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이석행 號 출범 산별노조·비정규직 과제 산적

민주노총 새 위원장으로 27일 선출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임기 3년 동안 민주노총 안팎에 놓여있는 각종 난제들을 헤치고 나아가 한다.

이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조화를 통한 내부 통합을 이뤄야 하고 외부로는 비리 사건으로 추락한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조직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부적으로는 산별노조 체제 구축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고 사회적 대화 등으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민주노총의 운

동선에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온건파인 이석행 위원장이 당선됨으로써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놓고 경색된 노사정간 관계 복원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쟁과 대화 병행을 주장하는 국민파(온건파) 계열의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일정한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노정간 대화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등을 놓고 민주노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총과의 관계 복원에도 유

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노총간 공조도 사안별로 가능할 것으로 노동계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당장 산별노조 체제 구축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라는 당면 현안에 매달려야 할 처지다. 노동계는 노조조직을 하라 등으로 인해 현행 기업별노조 구도로는 더이상 투쟁동력을 모을 수 없다고 보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임금인상 문제 등에 대해 사업주들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벌이는 조직 형태인 산별노조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누구를 위한 신당인가



정후식 정치부 차장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엑스더스가 한창이다. 대규모 동반 탈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후속 탈당 신호음도 들린다. 29일 열리는 중앙위 당 내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 한다.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바꾸는 당헌 개정이 무산될 경우 전당대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탈당 붐물이 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합신당파가 주류인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지난 주부터 지역구에 내려와 핵심 당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탈당 결행을 위한 긍정적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단계계편 과정에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조직을 다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당원들과 지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17대 총선에서 열렬한 지지로 과반수를 넘는 152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3년도 채 못돼 '난파선'으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이대로 사분오열된다면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다.

더욱이 유권자들이 바뀐 개혁도, 경제도, 민생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백년정당"을 외치던 의원들 스스로 "열린우리당은 죽어야 한다"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선 뛰어내리는 게 사는 길"이라는 말을 서슴치 않는다.

지난 24일 전남도당에서 열린 '시국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핵심 당원들은 의원들의 이같은 태도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사수파도, 통합신당파도 아니라는 한 당원은 비공개 간담회 도중 회의를 나가 "말이 간담회지 방향을 다 정해놓고 몰고 가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자기 반성이나 회생이 없다"고 씩씩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의식이나 성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또 다른 당원은 "창당 이후 언제 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 정책에 반영해본 적이 있느냐"며 "잘못은 정치인들이 다 해놓고 욕은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다 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당과 통합신당에 대한 명분과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이후 선거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해야 했던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새로운 비전과 미래까지 제시 없이 정치 생명 연장에만 골몰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지지자들조차 힘빠지게 만든다.

오죽하면 "차라리 이대로는 선거하기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라"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라"는 요구까지 나올까. /who@kwangju.co.kr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높이준 빌 도시 가설을 심야전기 보급지원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 ▶ 저렴한 심야 전기 보일러를 특별공급으로
- ▶ 에너지 절약에 힘입어는 한
- ▶ 차등 전기요금지원 및 보조금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관주 0621873-4981 전남 010-9469-9373

Cell Banking

셀뱅크는 건강하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왔다가

혈액종 추후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T17 세포 치료제 시장입니다.

한국은행 지점인원 한국과학기술은행 광주지서 06-373-3475